

전두환 前대통령 육사생도 '사열' 논란

5공 핵심들과 퍼레이드 참관... 민주, 국방장관 사퇴 촉구

"29만원 밖에 없으면서 1천만원 기금이라니..."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5공 핵심 인사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두고 '사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가반란세력을 초창한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0일 육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 손녀를 비롯한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전 육참총장, 이화룡 전 보안사 대공처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고병승 전 3군 사령관 등 5공 핵심 인사들은 지난 8일 육사를 방문해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육사발전기금(이사장 김진영) 측은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500만원 이상 기금 출연자 160명을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초청했다. 당시 임석상관인 육사 교장 열자리에 서 있던 전 전 대통령은 생도들이 "우로 봐!"라는 구호를 외치자 손뼉만 쳤던 참석자들과 달리 생도들에게 경례로 화답하면서 '사열'이란 오해를 불러왔다고 육사 관계자는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부인 이순자 여사, 5공 핵심 인사들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하던 중 경례로 화답하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전 전 대통령이 생도들에게 경례로 화답한 장면은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보도됐으며, 누리꾼들은 이 장면을 캡처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퍼나르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민을 우롱하고 육사 생도를 모욕한 행위이다. 육사 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세상이 거꾸로 요지경 속이다"라는 등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육사 관계자는 "육사 생도들은 매주 금요일 공개적으로 자체 퍼레이드 행사를 한다"면서 "행사가 있던 당일

엔 초청자 160명 뿐 아니라 6·25전쟁 영웅인 고(故) 심일 소령 기념상 수상자, 일반시민 등 400명이 같이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사열한 것이 아니라 참관한 것"이라면서 "원래 공개 퍼레이드 행사에 일반 시민들을 초청해하던 정거적 의식을 초청 인사들이 같이 본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 따로 마련한 사열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사열'(査閱)은 임석상관 자격으로 부대의 훈련 정도, 사기 등을 열병과

분열을 통해 살핀다는 군사 용어이다.

또 법원에 총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 뿐이라고 신고했던 전 전 대통령이 육사 발전 기금으로 1000만원 이상 출연한 육사동문 명단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에는 1000만~5000만원 미만 출연 동문으로 11기 출신인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 육사발전기금 측은 "전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부터 1995년 1월까지 모두 1000만원의 기금을 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박종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에 생도에게 쿠데타 세력 앞에 수 있고 권력도 누릴 수 없다는 반한법적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29만원밖에 없는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그가 어디서 돈이 나서 육사발전기금을 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습뉴스·이종형기자 golee@



지난 9일(현지시각) 연락이 두절된 지 나흘만에 발견된 페루 한국인 탑승 실종헬기 사고 현장 모습. 사진 속 중앙 부분 하단에 사고 헬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 /연합뉴스

한인 8명 탑승 페루 실종헬기 발견

나흘만에... 탑승자 14명 전원 숨진 듯

지난 6일(현지시각) 페루에서 한국인 8명 등 승객 14명을 태운 채 실종됐던 헬기편이 9일 당국에 발견됐다. 당국은 사고 헬기가 암벽과 충돌한 뒤 교신이 두절됐으며 한국인들을 비롯한 탑승객 전원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페루 경찰과 군 당국은 이날 실종 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공중 수색하다 마마로산 산 해발 4950m 지점에서 사고 헬기 잔해를 찾아냈다.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육로 구조대도 헬기 잔해가 있는 곳을 파악한 뒤 현장에서 탑승객의 시신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색에 참여한 현지 경찰 관계자는 주 페루 한국대사관 측에 "헬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8명 등 승객 14명 전원이 사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피코 스마나 쿠스코 공항안전청장은 실종 헬기가 산과 충돌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당국이 사고 헬기 탑승객 전원의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은 이날 밤 10여명의 수색 경찰관들을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야영을 하도록 한 뒤 10일

날이 밝는 대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헬기에 탔던 한국인 기업체 직원들은 지난 6일 오후 마스코 인근 강에서 수력발전소 건설후보지를 시찰한 뒤 헬기를 타고 쿠스코로 돌아오다 연락이 두절됐다.

사고 헬기에는 삼성물산(3명)과 수자원공사(1명), 한국종합기술(2명), 서영엔지니어링(2명) 등 한국인 직원 8명을 비롯, 헬기 조종사 등 14명이 탑승했다.

사고가 난 헬기는 1975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종은 'S-58 ET'다. 제작된 지 37년이나 된 구형인 탓에 기체결합에 따른 사고 의심도 나오고 있지만 기상사정을 고려할 때 악천후에 의한 충돌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교직원·공무원 보육수당 지급은 이중지원”

시의회 정회권 위원장

광주시의회 정회권 교육위원장은 10일 “만 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또 교육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국가정책사업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아동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전국적으로 189억3804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만5세 자녀를

둔 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무원의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1억7280만원을 별도 책정했다”며 “이는 이중지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이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만 5세 자녀에 대해 사실상 무상지원, 의무교육을 구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 및 공무원들 480명에게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의회, 유명무실 조례 113건 정비

광주시의회가 제208회 임시회를 통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조례 또는 활용되지 않은 조례 등 총 113건의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총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홍)가 5개월 동안 현행 조례 442건(광주시 387건·시 교육청 55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일제 정비를 벌여 이 중 113건의 조례를 재정비해 208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정비특별위는 일제 정비 결과 상위 개정으로 사문화된 '광주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조례' '광주시 지

방공기업법적용 사업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10건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광주시 급고지정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21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위법 조문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례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명칭변경이 필요한 조례,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조례 등 82건에 대한 조례도 일괄개정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檢 ‘내곡동 사저 의혹’ 모두 무혐의

7명 불기소 처분... 민주 ‘면죄부 수사’ 비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이 대통령 양 두 형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면죄부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주할 주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당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으며 시형씨와 임대료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특이점 특허등록 : 3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 이 함께하는!

검색 | 다와옥션 |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 /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실전투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 10시(임정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강사 : 안 성욱 교수(저자직강)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주택 / 근린시설
▷서구 동성동 역세권 6층 의료시설 대지 290평 건물930평 감정가22억 최저가14억
▷영광군 영광읍 2중주거 2층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물90평 감정가2억 최저가1억3천

다과주택
▷서구 동성동 2중주거 3층 다가구 대지90평 건물138평 감정가14억6천 최저가13억2천
▷남구 지석동 1중주거 3층 다가구 대지130평 건물200평 감정가7억5천 최저가13억5천

공장 / 공장·창고부지
▷광산구 하남동 1중주거 공장 대지420평 건물135평 감정가15억5천 최저가4억4천
▷광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감정가12억2천 최저가9천6백

토지 매매
▷화순군 도곡면 도곡초등학교 4차선도로변 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무인읍 신화리 기업도시부지
농림지역 13,000평 매매1억5천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남구 월산동 들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프장 및 예식장을 금매매로 찾습니다. 매수매도 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광고물건 (상가빌딩매매)
* 서구 동성동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04평 건물 310평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물2181평
* 남구 월산동 상가주택 대지 450평 건물 985평
* 북구 우안동 전대점용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물 600평
* 북구 우안동 동경대후문 원룸 대지 71평 건물 98평 방15실
* 북구 삼각동 식당건물 면적 975평 (식당및주차장)
* 광산구 수원동 상가주택 대지 98평 건물 149평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 웨딩홀 대지 1741평 건물 약 4000평
* 남구 대호동 동신대부근 상가주택 대지 97평 건물 130평
* 남구 남대동 상가빌딩 대지 119평 건물 700평
* 서구 삼부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물 873평
* 서구 삼부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물 1415평
* 서구 삼부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물 884평
모든건물 현업 중! 양매수 보장!

광고물건 (토지매매)
* 삼부지구 운전자수지 4거리 부근 대지 약 1000평 매매
* 서구 사창동 제1종단위지역 대지 948평
* 북구 우안동 전통삼업지역 대지 500평
* 광산구 중성동 대지 500평
* 광산구 중성유원지 부근 대지 1010평
* 광산구 수원동 대지 10,737평 잔존지, 자연녹지
* 정양동 남대동 제1종단위지역 대지 약 5000평 제1종단위지역
* 담양군 대대면 송곡리 대지 5000평 잔존지, 보전관리지역
* 남구 금곡면 원곡리 대지 3200평 도시지역, 자연녹지
* 남구시 원곡면 옥곡리 대지 1900평 계획관리지역

양산동 원룸용 토지 매각

【 목적 】
대지

【 면적 】
692㎡ (209.7평)

【 용도지구 】
1종 일반주거지역

【 추천 용도 】
원룸, 단독주택 적합

【 위치 】
동림 IC 5분거리
첨단지구 인근

【 특 】
남향의 직사각형
토지로 활용도 우수

【 매도가격 】
170만원/평

【 연락처 】
010-2067-7103(주인직접)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111-802-2532 (광주은행 신복빌딩, 대인동 송정서점내편)

상가/원룸 매매

▶ 총합계 : 보증금 4,500만원 월세 800만
▶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
▶ 토지면적 : 330.58㎡(100P)
▶ 건축면적 : 737.19㎡(223P)
▶ 매매가 7억4천만 (용자 2억4천4백 포함)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8백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4억5천 원수익 678만원 연수익을 18%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 011-684-3886

오피스텔 매매

▶ 총합계 : 보증금 8,250만 월세 1,425만
▶ 지하 2층상 11층 11층 4
▶ 사무실 1, 10명 27,11명 6개, 13명 4
▶ 토지면적 : 509.09㎡(154P)
▶ 건축면적 : 1375.21㎡(416P)
▶ 매매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9천7백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이자 6% 250만원을 공제하면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로 아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 011-684-3886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 200평
-연면적 : 150평
-보증금 : 1억5천만원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 29억원

평동공단 부지매매

-대 지 : 3000평
-분할가능
-매매가 상담후 결정

첨단산단 공장매매

-대 지 : 1000평
-공 장 :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도피아 사거리
010-8289-8549